

2015 SeMA-하나 평론상

서울시립미술관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평론상을 제정, 국내 미술평론의 활성화 이끈다.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은 미술 발전을 위한 후원을 표방한 하나금융지주(대표이사 김정태)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eMA-하나 미술상’으로 미디어아트어워드와 평론상을 제정하였다. 지난해 2014 SeMA-하나 미디어아트어워드에 이어, 올해는 2015 SeMA-하나 평론상을 추진하여 첫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SeMA-하나 평론상은 국공립미술관이 제정한 최초의 평론상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국내외적으로 작가들을 위한 작가상 및 레지던시, 전시지원 등 작가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작가들의 작업활동 및 다양한 예술실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 비교적 풍부히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이 작가들을 비평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평론작업이나 평론가 지원 기반이 취약하고, 이것이 평론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미술평론의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미술기관 최초로 평론상을 제정하였다. SeMA-하나 평론상은 국내외 평론상을 통틀어 가장 높은 2천만의 상금을 내걸고 탁월한 평론 역량으로 지속적으로 평론 활동을 펼쳐나가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견인할 평론가를 발굴해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5 SeMA-하나 평론상, 첫 수상자 곽영빈, 김정현 공동수상 국공립미술관 최초의 평론상, 국내외 평론상 중 최고의 상금으로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서울시립미술관이 SeMA-하나 평론상 2015년 첫 수상자로 곽영빈, 김정현을 선정했다.

전체 응모자 43명에서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였고, 3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응모평문 심사에서 비평대상의 선정, 주제 의식, 논리 전개력, 서술의 정도, 평론가로서의 시야, 감각적 스타일, 문체 및 문장력, 발전 가능성 등을 심층 평가하였으며, 인터뷰 심사에서 이론적, 학문적 배경, 관심분야, 활동 의지, 미래적 전망 등에 관한 후보자들의 구술을 참고하여 미래적 발전역량을 갖춘 평론가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수상자 선정 논의를 거쳐, 국·공립미술관 최초의 평론상으로서 국내 미술평론계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그널을 주자는 의견이 모여져 SeMA-하나 평론상 의 첫 번째 수상자로 곽영빈, 김정현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곽영빈은 독해하기 쉽지 않은 작가 구동희를 쉽지 않은 특유의 스타일 있는 문장으로 풀어낸 작가론 「수집가 혹은 세상의 큐레이터로서의 작가: 구동희론」으로, 김정현은 제도권 미술관부터 최근 신생공간까지 유행처럼 번진 퍼포먼스를 폭넓은 현장 감각으로 풀어낸 글 「퍼포먼스의 감염 경로는?- 퍼포먼스 예술의 동시대성을 찾아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곽영빈은 1973년생으로 미국 아이오와 대학 영화와 비교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와 홍익대에서 영화이론, 매체미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김정현은 1985년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전시기획 및 평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신진평론가이다.

공모제와 블라인드 심사로 운영, 일체의 자격제한을 없애고 평론역량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다.

이번 평론상은 “공모제”로 진행되었으며,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직업 등 일체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평론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열린 평론상”으로 운영되었다. 2015년 6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응모기간 동안 총 43명이 응모하였다. 응모자는 연령대별로 50년대생 1명, 60년대생 4명, 70년대생 13명, 80년대생 20명, 90년대생 4명(생년 미기재 1명)으로 신진의 평론가들이 지원한 경향을 보였다. 자유글의 주제로는 작가론(16편), 젊은 비평가의 문제 및 평론의 현재와 미래, 신생 전시공간에 대한 문제, 퍼포먼스, 아카이브 기반 미술,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과학기술시대 미디어아트 등 한국 미술과 미술계의 동시대적 문제들이었다.

심사는 인터뷰를 포함해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체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평론 역량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자는 원칙하에 응모자를 비공개로 하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었다. 심사는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 미술사가 김현숙 교수, 김현주 추계예술대 교수, 미술평론가 반이정, 미술평론가 임근준 등 미술이론, 미술사, 평론 현장에 몸담고 있는 미술평론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심사대상은 지정글과 자유글 두 편의 평문으로, 지정글은 원고지 30매 이내로 서울시립미술관이 2014-15년 개최한 전시에 대한 비평, 자유글은 원고지 70매 이내로 작가론, 전시비평, 주제비평이었다.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총 43명의 응모글 86편을 7명의 심사위원들이 각자 심사하여 우수자 10명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토론심사로서,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5명 이상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 6명에 대해 토론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하였다. 3차 심사는 인터뷰심사로서, 응모글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론적 학문적 배경 및 현장 경험, 평론활동의 지향점, 평론에 대한 생각과 각오, 현재 미술계 상황에 대한 생각 등을 진솔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평론가로서의 자질, 역량 등을

점검하였다.

수상자 광영빈은 ‘큐레이터로서 작가’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지정글과 자유글을 풀어내는 비평적 일관성을 보여줬고, 독해하기 힘든 구동희라는 동시대 작가를 그에 버금가게 쉽지 않은 문장으로 대응하는 당돌함을 보였고, 글에 스타일이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른 응모자들에 비해 영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수상자 김정현은 그간 이벤트성으로 존재하던 퍼포먼스가 주류에 편승한 현상을 다원예술이 전면화 된 미술계 현실과 결합시켜 풀어갔고, 권위 있는 제도권 미술관부터 독립 신생공간까지 아우르는 해박한 현장 감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탁월했다.(심사위원장 반이정)

서울시립미술관 평론상의 지속적인 운영 통해 역량 있는 평론가를 배출하겠다.

SeMA-하나 평론상은 국공립미술관 최초의 평론상으로서 2015년 의미 있는 첫 수상자를 냈고, 이후 격년으로 평론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역량 있는 평론가들을 꾸준히 배출하고자 한다. 올해 첫 평론상 운영과정에서, 이 상이 ‘한국 미술평론 활성화’라는 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미술의 형질을 반영할 수 있는 공모방식으로서의 전환 및 운영방식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론상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SeMA-하나 평론상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평론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eMA-하나 평론상은 위촉된 한국의 미술평론을 활성화하는 시작점이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서울시립미술관은 그 시작의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심사평

강수미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SeMA-하나 평론상>은 올해 처음 제정된 미술비평상으로 지원자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여기에 더해 엄정한 심사를 기본으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지원자들의 비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블라인드테스트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평론상에 ‘한국미술비평’을 근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주체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던질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의 지원자가 신진비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응모작 43편이 모두 익명 처리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응모작의 전체적인 특징이 글을 많이 써본 이의 문체라기보다는 글쓰기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실험작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다른 한편, 실제로 지원자 대부분이 신진이라면, 주최 측의 목적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상이 기성 비평가의 평론 활동에 대한 인정과 치하보다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비평가 또는 비평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43편의 응모작에서 집단의 특성, 또는 집합적 관심사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젊은/청년 미술비평 세대가 자신이 속한 세대의 미술계 환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청년 미술비평 세대는 미술 창작과 비평이라는 큰 테제를, 사회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존 경쟁 및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결합시켜 보고 있다. 이는 지원자들에게 한국 미술계라는 공동체 속 자신의 자리 문제가 비평의식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점으로 읽히며, 동시에 그 바탕 위에서 작가 및 작품을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평 주제 또는 비평 대상으로는

신생전시공간에 대한 문제, 젊은 비평가의 부재 문제, 퍼포먼스, 아카이브 기반 미술,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등 지금 여기서 ‘컨템포러리 아트’로 수행되는 특정한 미술 실천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응모작들은 수준의 편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탁월하거나 아주 엉망인 글들로 양분되지는 않았다. 비교적 자신의 관심사를 소박하게 풀어내는 글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비평 대상, 서술의 정도가 몰개성적인 점은 크게 아쉽다. 이를테면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과 작가, 전시, 작품 등 비평 사례가 되는 것을 특정 하는 지점이 상당히 비슷한데, 이는 동시대적인 경향이라기보다 비평관의 취약함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에 응모한 글들에서 간취한 사실 하나는, 무조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글쓰기의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많은 데이터, 자료, 통계들을 기반으로 글을 쓰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그것들이 비평가의 미학적 판단으로 중층 결정될 때 독자에게는 그 글이 평론으로 읽힐 것이다. 이론적 맥락이든 현장의 맥락이든 조밀하게 구성된, 의미의 맥락과 사물/사태의 현상이 잘 교직된 평론이 그와 같다.

김현숙 (미술사가)

1회 <SeMA-하나 평론상> 응모자들의 다수는 현재 미술 현장에서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소장 평론가들이었고 기대와 달리 중견 평론가들이나 문학 평론가를 비롯한 타 분야의 지원은 없었다. <SeMA-하나 평론상>이 공모-심사의 방식을 견지하는 한 향후에도 중견 평론가의 응모 가능성은 희박하여 <SeMA-하나 평론상>이 젊은 평론가들의 활동을 도모하고 격려하는 상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응모 글들의 수준 편차가 컸으며 대체로 미술 현장의 최신 동향에 민감했다. 지나치게 현학적인 언술, 서구 문화 이론가들의 용어와 관점을 준거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의 글이 다수를 점해 한국 미술 비평의 현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미술 문화 전반에 대한 광대한 시야로 현상을 점검, 비평적 논지를 관철시키며 미래적 전망을 확보한 글을 수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현주 (추계예술대학 교수)

전반적으로 올해 하나평론상의 응모작들은 응모자 43명의 비평문의 수준 차이가 크고, 다양한 문제의식이나 독자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나 전시, 작가에 국한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한 몇몇 해외 이론가들에게 의지하는 이론적 모델의 궁핍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비평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독자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글의 논리적 전개 및 문장력 등에서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태작들이 적지 않고, 미술비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쓴 글이 눈에 띄는 점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미술 비평계의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원자들이 참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이 상이 유능한 인재가 미술비평에 유입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한국 미술의 동시대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몇 편의 우수한 비평문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인데, 이런 글에서 발견되는 안이한 자기 복제는 경계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는다.

반이정 (미술평론가)

총 43명의 응모작을 제본한 두툼한 1차 심사 자료를 검토한 심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다. 면접에 응할 최종 3인을 선별하는 2차 심사 자리였는데, 1차 심사 자료를 살핀 소견을 돌아가며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다.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내놓은 의견은 이랬다. “이번 공모는 당선작을 내기 어렵다고 느꼈다.” 응모작들의 지지부진한 수준을 꼭 감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응모작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지금 미술평론이 직면한 자연스런 현실 중 하나로, 형질이 변한 미술에 호환하지 못한 평론의 더딘 진도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거의 모든 공모전 심사에서 좋은 점수와 나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심사위원 사이에서 쉽게 합의가 이뤄진다. 면접 심사에 오른 최종 3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평점을 받은 응모자들이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 저마다의 선발 기준은 있었을 게다. 내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응모작 상당수가 참고 문헌의 무수한 인용에 가려 자기 견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학술적인 평문의 외양을 갖추려 애쓴 글보다, 거칠더라도 당대 미술이 직면한 시의적 현상을 짚은 응모작에 후한 점수를 줬다. 끝으로 문장력도 중시했으나 응모작 대부분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독창적인 표현력과 전달력을 다듬는 노력은 신진 평론가 뿐 아니라, 기성 평론가도 의식해야 하는 덕목이지만 쉽게 간과된다.

응모작을 살피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미술의 위기를 주제로 다루거나, 제도 미술계를 성토했다는 주장이 제법 많았는데, 예의 ‘미술 평론의 위기’도 거론되더라. 평론 공모전이 평론의 위기를 구제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미술 평론의 위기라는 주제에

집중한 응모작의 추이에 비해, 응모작의 거개가 전반적으로 잘 독해되지 않는 ‘기성 평문의 유형’을 답습하는 점은 주시해야 하리라. 현실에서 평론이 소비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형질이 크게 변한 오늘의 미술에 여전히 낡은 독해법으로 대응하려는 평론의 관성도 있을 것이다. 평론의 위기라는 주기적인 쟁점보다, 평론이 직면한 형질변화라는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임근준 (미술평론가)

<SeMA-하나 평론상>의 응모작을 읽는 마음은, 심사자의 것이었다기보다는 동료로 만나길 갈구하는 자의 것에 가까웠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에 힘입어 초유의 평론상을 제정한 뜻이 고맙고 기쁜 일이라, 공들여 원고를 읽었다. 응모 평문은 1인당 2편—지정글과 자유글—으로 제한됐는데,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응모자 가운데 편차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나는 1순위 1인, 2순위 1인, 3순위 3인을 뽑았고, 심사 회의 결과 1순위 1인과 2순위 1인, 그리고 3순위자 가운데 1인이 최종 후보 3인으로 선정됐다. 달리 말해, 심사 과정에서 여타 심사자들과 큰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현재의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상의 목적이 평론의 활성화에 있다면, 운영 방식에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뤄져도 좋을 듯하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최종 경쟁자 3인을 뽑고 연구 과제를 제시해 6개월 뒤에 경쟁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거나, 아니면, 우승자를 뽑은 뒤 1년의 연구 기간을 두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년간 연구한 결과를, 평문을 낭독하는 기념 강연으로 선봬거나, 혹은 전시 기획으로 제시하는 것 정도는, 우승자의 재량에 맡겨도 좋을리라 본다. 우승자를 가리고 바로 시상식을 열면, 정작 그의 글이나 비전에 주목할 기회는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의 경쟁상 제도를 참조해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결과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꾸민다면, 신진은 물론 중진 평론가 세대에게도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마련된 평론상이, 매해 유의미한 성취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심사 총평 <평론동네의 내기>

반이정 (미술평론가)

평론동네

계간 문예지 <문학동네>는 작년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문학동네 소설상’은 <문학동네>가 창간된 1994년부터 진행한 소설 공모전으로 2014년 20주기를 맞았으나, 20주기를 기념할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많은 234명의 응모자가 247편의 응모작을 보내왔지만, 응모작을 검토한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단 20주기 공모에서만 당선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전해인 2013년 19회 공모 때도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소설을 찾는 수요가 급감한 사정에 더해, 완성도를 갖춘 공급마저 따라주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요가 이 지경일진대, 평론에 대한 수요와 지원자가 적은 건 불문가지다. 미술평론의 위기는 미술잡지가 다루는 주기적인 특집이지만,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기적인 특집’일 따름이다. 어디 이 뿐인가. 이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래 희망 직업을 묻는 설문 결과는 전시 기획자에 집중된 답변을 보여줄 뿐, 평론가를 지원하는 이는 한자리수 비율을 밀도는 수준으로 고착된 지 이미 오래다.

최종 3인 평가

최종 면접에 오른 3인, 광영빈 김정현 안진국은 1, 2차 심사 모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평점을 받은 응모자였다.

광영빈은 ‘큐레이터로서 작가’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지정글(전시 리뷰)과 자유글을 풀어내는 비평적 일관성을

보여줬다. 독해하기 힘든 구동희라는 동시대 작가를 그에 버금가게 쉽지 않은 문장으로 대응하는 당돌함도 보였다. 덕분에 글에 스타일이 있다는 칭찬도 받았다. 다른 응모자들에 비해 영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식견도 가산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문장이 너무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현은 화단에서 흔히 이벤트성으로 존재하던 퍼포먼스가 어느덧 거스를 수 없는 주류에 편승한 현상을, 다원예술이 전면화된 화단 현실과 결합시켜서 풀어갔다. 권위 있는 제도권 미술관부터 열병처럼 번진 독립 신생공간까지 아우른 사례로 해박한 현장 감각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풍부한 인용에 비해 독보적인 해석에는 소홀 했다.

안진국은 빅 데이터라는 정보기술의 최신 유행어를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무분별할 만큼 차용되는 아카이브 전시의 유행과 연관 짓는 기민함을 보여줬다. 또 문학적 수사처럼 읽히는 평문의 구성도 미숙하지 않아서 변별력이 있었다. 진솔하고 강직한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그렇지만 다소 장황한 지식의 나열은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최종 후보에 오른 3인의 글을 살피면서, 내가 평소 챙기지 못했던 신생공간에 대한 해박한 인용, 빅데이터처럼 미술과 무관한 최신 이론의 비평적 결합, 독해가 힘든 작가에 대한 과감한 해석 등이 보여준 태도 앞에서 나아말로 분발해야겠다는 긴장감마저 느꼈다. 그렇지만 한편 이런 반문도 던져보고 싶다. 이런 재능을 갖춘 이들을 왜 현장이 아닌 평론 공모에서 처음 만나게 된 걸까? 이들에게 기고할 지면이 주어지지 않아서일까? 나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본다. 비단 이번 응모작만으로 평론가의 품질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평론이 텍스트의 굴레에 갇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견으로 수상자 결정이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좋은 작품을 향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만 같다. 그렇지만 비평 공모는 달랐다. 최종 3인이 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거니와, 평론을 업으로 하는 심사위원들 사이의 비평적 취향 차이까지 가세해서 인 듯하다. 공모작만으로 평론가의 자질을 확정하긴 어려웠다. 모든 심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수상자 결정에 한 두 번의 반전까지 있었다. 갑론을박 끝에 곽영빈과 김정현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

미술지형의 변화

1차 심사평에서 짧은 단서만 남긴 변화된 미술 지형과 평론의 관계에 관해 얘기할 차례다. 미술을 미술이게 하는 외형과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변한다. 예전에 알던 미술의 정의와 조건은 확장되었고, ‘이해 불가의 상태’ 그 자체마저 당대의 미적 정서로 통용 되는 분위기다. 미술의 형질이 변하니, 전시 공간의 형질도 그에 맞춰 변한다. 근래 가장 핫한 아이템인 신생공간을 보자. 신생공간 운영자와 나 사이로 건널 수 없는 세대차가 존재하는 것 같진 않지만, 신생공간의 생리나 그 안에서 유통되는 작업의 논리를 내가 파악 한다고 믿진 않는다. 신생공간은 동시대 미술을 바라보는 동시대 미술인의 변화된 사유 가운데 다만 일부가 반영된 현상이리라.

1차 심사평에서 나는 비평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기성 평문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성 평문 유형’이라는 바이러스는 모든 평론 공모 지원자들의 글에 균질하게 스며들어 있다. 부족함 없이 빼곡한 참고 문헌, 객관적인 자료 나열에 치우친 구성, 읽히지 않는 논문 투의 수사법,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논변 등이 ‘기성 평문 유형’의 바이러스다. 많은 응모작이 취한 이 같은 균질성은 미술 비평이 현실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기성 평문 유형’ 바이러스는 작가들이 작성한 짧은 작가

노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진솔하게 핵심을 요약해도 될 일을, ‘기성 평문’을 흉내 내어 장황하게 풀어쓴 작가노트가 무척 많다.

<SeMA-하나 평론상>이 굳이 공모에서 밝힌 “새로운 시각/ 도전적인 주제의식/ 참신한 비평”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꺼내지 않아도, 설마 낡은 시각을 지닌 신진을 뽑을 공모전이 어디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응모작 다수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지 못했다.

SeMA+하나에 당부

한국 미술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립미술관을 향한 당부도 남긴다. ‘기성 평문 유형’이 모든 공모전에서 반복되는 건, 공모의 요강이 변화된 미술의 형질과 무관하게 지난 양식을 고수하기 때문일 게다. 기왕에 언론사와 미술잡지 등이 시행하는 미술평론 공모전도 있다. 기성 공모에서 당선된 인원만 계산해도 매년 2명 이상의 신진평론가가 배출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장에서 유의미한 활약을 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나는 평론 공모들이 요구하는 지원 양식이 현장을 읽는 데 쓸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문의 학술 논문의 형식은 신예 평론가의 발굴보다는 기성 평론가에 대한 학술적 재평가에 어울리는 잣대다. 거의 모든 평론 공모가 고집하는 학술 논문 형식의 등용문은 사문화된 평론 형식으로 연결시킨다. 읽히지 않는 ‘기성 평문 유형’이 반복되는 거다. 이번 평론 공모에서 ‘평론의 위기’를 다룬 응모작이 제법 있었음을 상기하자.

다변화된 미술이 출현하는 현장과 호흡하려고 A4용지 10매가 필요하진 않다. 각주가 주렁주렁 달린 논문 투의 평론, 그 누구도 진지하게 읽지 않는 지루한 평론이 양산되는 배경은 이렇다. 오히려 순발력 있고 진솔한 논평을 담기에 어울리는 그릇은 A4용지

1-3매 분량이다. 이런 형식과 분량의 여러 포트폴리오를 받아, '현장에 출전시킬 선수'를 선발하는 게 진솔한 등용문이라고 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진 비평가를 모집하는 기성 평론의 공모 요강은 전형적인 '기성 평문 유형'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다.

내기

운 좋게 기성 평단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기성 평문 유형'을 인습적으로 답습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 SeMA-하나 로 당선된 평론가들도 사문화된 비평 문화에 흡수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1차 심사평에서 밝혔듯이 그냥 평론가가 아닌 좋은 평론가가 되려면 문장력, 남다른 안목, 시의적인 현장 감각 등을 갖춰야 할 게다. 그렇지만 좋은 평론가의 존재감을 만드는 진짜 동력은 진정성과 용기라고 나는 믿는다.

공동 수상자, 혹은 면접 심사에 오른 응모자 셋은 모두 적정 수준을 충족시킨 필자들이었다. 평가하고 논평하는 직종의 성격상, 당선 축하의 인사말을 대신해서 내기를 걸까 한다. 기왕에 평론 공모로 배출된 자칭 타칭 미술평론가의 거개가 현장에서 잊혔음을 잊지 말자. 결국 모든 평론 공모의 최종 승자는 독보적인 논평으로 현장에서 잊히지 않는 누군가일 것이다. 그게 누군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